

# 프로그램 진행개요

프로그램명	무등산의 반쪽, 중머리재		
활동목표	가볍게 오를 수 있고 많은 탐방객이 찾는 탐방코스로 숨어있는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준다.		
해설주제	당산나무, 중머리재		
해설재료	-	소요시간(')	30'

## 프로그램 진행순서

해설단계	해설주제	주요내용	시간(')	비고
시작	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첫인사</li> <li>- 국립공원 이해하기</li> <li>- 무등산국립공원 소개</li> </ul>	10	
주제별해설	중머리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만남의 광장</li> <li>- 무등산 길의 요충지</li> </ul>	15	
정리	마무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등산을 사랑합시다</li> <li>- 끝인사</li> </ul>	10	

신청인 :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(서명)

# 해설 시나리오

프로그램명	무등산의 반쪽, 중머리재
해설주제	세부 시나리오
첫인사	<p>(밝고 명랑하게)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“무등산의 반쪽, 중머리재” 프로그램 해설을 맡은 무등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.</p> <p>(단체의 경우 단체명 등) 여러분의 무등산국립공원 방문을 환영합니다. 만나 뵈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.</p>
국립공원 이해하기	<p>우선 출발하기 전에 국립공원은 어떤 곳인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.</p> <p>먼저,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.</p> <p>(대답유도)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 가본 곳 있으신 분 있으세요? 가보긴 했는데 국립공원인지 모르고 계시는건 아니겠죠? 과연 어디어디가 국립공원이 었을까요?</p> <p>북한산, 설악산, 덕유산, 지리산, 변산반도, 한려해상 등 전국 방방곳곳에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총 21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.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공원이 21곳인데요.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 같나요? 적은 것 같나요? 그렇다면 국립공원은 어떤 곳일까요? 어떤 곳이 국립공원이 되는 것일 까요? (대답유도)</p>

	<p>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인데요.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. 우리나라 생물종의 41%, 멸종위기종의 65%가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생물자원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</p>
<p>무등산국립공원 소개</p>	<p>드디어 광주에도 국립공원이 생겨났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2013년 3월 4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후 25년만 입니다. 무등산국립공원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화순군과 담양군까지 걸쳐져 있는 호남의 진산이며 광주시민들은 어머니의 산이라 불릴 정도로 사랑받는 산입니다.</p> <p>무지개를 뿜는 돌과 같다 하여 무돌산 또는 서석산 그리고 상서로운 돌이라는 뜻에서 무진악이라 불렀습니다. 증심사 쪽에 무당굴이 있어서 또는 큰 당산(마을의 수호신있는 산이나 돌)으로 삼아서 무당산으로도 불렀습니다.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무등산은 무돌(무지개를 뿜는 돌)의 이두음으로 써서 고려 때부터 무등산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. 무등산이라는 이름은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,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이라는 뜻입니다.</p> <p>무등산국립공원은 1,187m로 완만한 산세를 이루는 흙산으로 멸종위기종 8종을 포함한 2,29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, 주상절리대(입석대, 서석대 등), 너덜정(지산너덜, 덕산너덜등)같은 기암을 포함한 61개소의 자연경관이 있습니다. 문화경관자원으로는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 보물 2점을 포</p>

	<p>합한 지정문화재 17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수박과 차가 유명합니다.</p> <p>무등산국립공원은 크게 증심사지구와 원효사지구로 나뉩니다. 여기분들이 모인 이 곳은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구입니다. 증심사지구에서 가볍게 오르기에는 증심사를 지나 당산나무로 중머리재까지 많이 산행하십니다.</p> <p>증심사지구 입구에서 증심사를 지나 당산나무, 중머리재까지는 3.4km로 1시간 15분 소요됩니다.</p> <p>저와 함께 중머리재까지 이동하실까요~</p> <p>이 곳에서 몸한번 풀고 이동하겠습니다.</p> <p>(다함께 몸풀기 체조)</p>
<p>만남의 광장 중머리재</p>	<p>(중머리재에 올라서, 주위를 둘러보며)</p> <p>자~ 이곳이 바로 중머리재입니다. 저기 표지석에 보시면 중머리재라고 써여 있습니다. 중머리재까지 올라오신 기념으로 표지석 옆에서 단체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가시곤 합니다.</p> <p>중머리재는 해발 608m이며, 말잔등처럼 아주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. 이곳은 바람목이 되어서 그런지 언덕에는 소나무 한그루 자라지 않는데 그 모습을 보고 스님의 머리와 같다고하여 중머리재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. 봄에는 철쭉이 피어 봄의 절경을 만끽하게 해주고, 가을에는 억새풀이 장관을 이뤄 가을의 정취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</p> <p>모두 식사는 하셨나요?</p>

	<p>넓은 중머리재는 무등산의 광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주말이 되면 무등산을 찾은 광주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는 장소이기도 합니다.</p>
<p>무등산길의 요충지</p>	<p>중머리재는 무등산 길의 요충지입니다. 새인봉에서 오르는 길도 이곳에서 교차되고, 바람재에서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속칭 중터리길도 여기를 지납니다. 또 이곳에서 장불재를 거쳐 화순으로 넘어가는 지름길이었으며, 용추계곡을 지나 화순읍에 이르는 길도 여기를 거쳐야 했다. 정상에 올라가는 길도 이 고개를 넘으면 훨씬 가깝습니다.</p>
<p>마무리</p>	<p>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영산 또는 어머니의 산이라 불립니다.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입니다.</p> <p>인구 150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여 있으며 연간 약 700만명이 방문하는 곳이지만,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통해서 무등산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산인지 알 수 있습니다.</p> <p>이번 산행을 통해 무등산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시간되었길 바랍니다. 앞으로도 무등산국립공원 중심사지구를 방문하실 때에는 다른 누구보다 아는 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</p> <p>몇 시간동안 저를 따라 이동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</p>